

# 제동이 걸리게 될 농후사료 위주의 축산

전문이사 김 남 용

〈한국낙농육우협회〉

우리 축산분야에는 조용한 날이 없이 계속 들끓고 있다. 신문 또는 방송에 심심찮을 정도로 축산관계 기사가 보도되기도 한다. 닭 문제, 돼지 문제에서 이제는 소에 관한 것이 축산분야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다.

축산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행정당국자이건 양축가이건 항시 불안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사료문제가 가세하여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즉 사료곡물의 수입액이 연간 약 7억불(미화)이나 되며 대두박 원료인 콩 수입까지 합하면 약 10억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천억원에 이른다.

단일종으로 외화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는 원유(기름) 다음이 바로 이 사료곡물인 것이다.

벌써 오래 전부터 이러한 사료곡물을 수입해다 가축을 먹여 축산물을 얻느니 차라리 직접 축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더 이롭지 않겠느냐는 이론이 거론되곤 했다.

그러나 각종 농산부산물과 산야지에 자생하고 있는 많은 양의 야초와 목야지에서 얻어지는 목초, 그리고 사료 작물의 비중도 무시할 수 없는 양이며 또 국내산 사료곡물도 있으므로 우선 국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한 것에 한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사료곡물에 의존하자는 취지하에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장려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축산물 자체를 수입하는 것보다는 부가가치가 있기도 하지만,

한편 사료곡물의 도입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

고 가축 수에 비하여 곡물사료의 사용비율이 외국보다 높은 점과 수입자유화 물결에 따른 외화사정의 어려움 등의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 현재와 같은 농후사료 위주의 축산을 계속 방임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이 뒤따른다.

외국으로부터 사료용 보리가 수입되고 있으면서 국내산 보리는 외국산보다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해를 거듭할수록 누증되어 창고에 재고로 쌓여 있게 되었는데 금년에는 그 중 얼마간을 8월부터 사료용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옥수수 일변도의 농후사료에서 곡류에의 다변화는 이미 실시되고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곡류다변화시 사료의 갑작스런 변경으로 부작용도 없지 않았으나 이제는 거의 정상화되어 있다.

국산 보리의 사용으로 사료의 질(質)에는 별다름이 없고 사료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나 이것은 국제 곡류가격의 하락으로 커버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고 보면 현재의 사료값에 변동이 없이 국산 보리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료곡물의 도입량을 어떻게 둔화시킬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 전 축산관계 인사와 양축가들의 숙제로 남아 있다.

사료곡물 도입의 증가추세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가를 어느 대책 모임에서 주고 받은 몇 가지 실패를 소개하고자 한다.

○ '소' 까지 곡물사료(농후사료)를 먹여야 하나? 소 사료를 만들지 말자!

○ 자급사료 생산을 하지 않는 낙농업은 규제

하자!

○사료 생산업체에서는 연초(年初)에 배정받은 물량 이상은 생산치 말아야 한다!

○학교주위 및 논두렁을 목초지 또는 사료포로 이용하자!

○농산부산물을 사료로 최대한 이용하자!

○볏짚을 최대한 이용하자!

○부존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초식가축의 증식으로 고기수율을 전환시키자!

○자급사료를 생산토록 최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하자!

○젓소 도입은 종축개량용에 한하되 그 수를 제한하면 1만여 두가 도입되어 먹는 곡류사료는 절감될 것이다!

○모든 가축에 자급사료 생산의무를 부여하여 그 부여된 자급사료를 생산치 못하면 배합사료 공급을 중지하자!

○닭 도계시 외국에서는 출하 8시간 전에는 사료를 급여치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출하 체중을 늘리기 위하여 사료를 최대한 먹이는데 외국과 같이 사료를 주지 않으면 사료절감이 될 것이다.

○가축을 개량하여 사료효율을 높이자!

(31페이지에서 계속)

먼저 계산에서 통보된 양을 편의상 ha로 계산하면 카리가 52kg으로 가장 적게 주는 성분이니카리 성분부터 계산을 한다.

○카리  $52\text{kg} \div 4.5\text{kg} = 11.6$

즉 18-18-18 복합비료 11.6포대를 주면 질소, 인산, 카리는 각각 52kg씩 주는 결과가 되며 그 이상 주어야 하는 성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 때 각 비료 1포대에 들어있는 비료의 성분량을 계산해 두면 부족분을 계산하는데 편리하다. 계산방법은 복합비료 1포대의 비료중량(kg)에 비료성분(%)을 곱하고 100으로 나누면 된다.

요소  $25\text{kg} \times 46\% \div 100 = 11.5\text{kg}$

용성인비  $25 \times 20 \div 100 = 5.0\text{kg}$

염화카리  $25 \times 60 \div 100 = 15.0\text{kg}$

즉 요소비료 1포대에는 질소성분이 11.5kg, 용성인비에는 인산성분이 5kg, 염화카리 1포

현재는 배합사료 구입시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구입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급사료를 생산하여 가축에 주느니보다 더 저렴하게 가축을 기르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갈수록 이런 가축 사양법은 어렵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는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전국토의 66%가 산지로 되어 있으니 말이다. 이 산지는 소를 입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 현재 풀과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초지와 사료포도 시비와 윤작체계, 품종 선별 등을 개선한다면 더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다.

사료곡물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기름 다음으로 외화를 많이 쓰는 것이 또한 사료곡물이고 보면, 사료곡물 도입의 급격한 증가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굳이 정책 당국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어떤 조치 이전에 자급사료 생산에 총력을 기울여 농후사료의 의존도를 극소화하는 것만이 우리 축산이 사는 길이며 나아가 이 나라가 번영하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대에는 카리성분이 15kg이 들어있다. 18-18-18 복합비료 11.6포를 줄 때 부족되는 성분은 인산과 질소이며 이 부족성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인산  $195\text{kg} - 52\text{kg} = 143\text{kg}$

즉 복합비료 11.6포대를 줄 때 들어가는 52kg을 빼면 143kg을 더 주어야 한다.

이 부족분을 용성인비로 보충해서 줄려고 할 때는

$143\text{kg} \div 5\text{kg}(\text{용성인비 1포에 들어있는 성분량}) = 28.6$

즉 용성인비 28.6포를 더 주어야 한다.

○질소는  $64\text{kg} - 52\text{kg} = 12\text{kg}$ 가 부족하므로 더 주어야 하는데  $12\text{kg} \div 11.5\text{kg} = 1.04$ , 즉 요소비료 1포를 더 주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계산한 것을 종합하면 18-18-18 복합비료 11.6포, 용성인비 28.6포, 요소 1포를 섞어주면 토양분석에 따라 통보된 비료를 전량 주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